불교, '문화 전성시대'를 열다

2025 불교 문화 결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목탁을 직접 쳐보고 있다. 사진=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서울 진관사의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올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된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에 대해 이보다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불교 관련 굿즈들이 품절 사태를 맞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아이돌 멤버는 불서를 추천했다. 이처럼 불교 문화계는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다.

불교 엔터 · 굿즈…Z세대 사로잡다

불교문화에 대한 인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는 올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곡 'ZEN(젠)'을 발표했다. ZEN은 '선(禪)'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실제 'ZEN'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는 '공(空)' '무아' '번뇌' '명상' '연꽃' 등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제니는 지난해에도 불교의 진언(眞言)을 뜻하는 'Mantra(만트라)'를 발매해 주목받은 바 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지난 1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출연해 불서인 〈초역 부처의 말〉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장원영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책을 추천했다.

인기 드라마에서도 불교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올해 방영된 SBS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직장상사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인물이 혼자 〈반야심경〉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장면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 굿즈는 Z세대들에게 '힙'함의 상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각종 불교 굿즈들은 구매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고 인기 상품들은 금방 동이 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캐릭터인 '반달이'의 스님 버전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을 제작·출시했다. 출시 즉시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은 현재 2차분까지 전부 완판된 상황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불교문화는 서브컬쳐의 영역으로도 진출했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진짜 스님이 버튜버(버츄얼 유튜버) '불법(佛法) 스님'으로 데뷔해 화제가 됐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불법 스님'은 데뷔 방송부터 4000여 명이 동시접속해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이 되다

올해에는 불교무형유산이 국가 지정 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사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받은 유산은 단연 '사찰음식'이다.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인 '사찰음식'은 지난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고 지정의 이유를 전했다.

국가무형유산이 된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사찰음식 대축제'가 6월 7~8일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사전등록자만 1만 5000여 명이 넘었고, 이 중 20·30대가 56%를 넘는 등 Z세대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9일 열린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세계음식학 석학들과 세프 등이 참여해 사찰음식이 기후위기 시대를 넘는 지속가능한 식문화임을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불교의례도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설행되는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태고종에서는 영산재 등 불교전통의식의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 악기인 태평소(太平簫)의 체계적 교육과 전승을 위한 보존회가 출범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보존·전승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불교 대형 전시 · 공연 '눈길'

불교 관련 대형 전시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것이 제14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진행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선예전 '명명백백'이다.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온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전시에서 스님은 전시 공간 전체를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 한 점으로 감싸는 작품 '명명백백', 칠흑 같은 옻칠 속에 자개가루 은은히 반짝이며 밤하늘의 별빛과 이를 담아내는 우주를 연상시키는 '별들의 향연' 등을 선보였다. 전시 기간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성파 스님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아 화제가 됐다.

불교 관련 뮤지컬이 제작·상연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큐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을 공연했다. '비·스·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특설무대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연이 이뤄졌다.

상월결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해 문화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비보잉,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이밖에도 광복 80주년과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81주기를 맞아 성북구 심우장에서 창작뮤지컬 '심우'가 상연되며 만해 스님을 추모했다. 극단 야성이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를 구미 대둔사에서 공연했으며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조국과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한 여성소리국극을 '백초월길 예술축제 진관아리랑'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불교유산 보존과학 인프라 구축

올해 3월 5일에는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존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과 양평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나은 환경에서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불화인 '괘불'을 보존처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보존·연구시설이어서 향후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난 후 35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예천 보문사 신중도를 시작으로 금산 보석사 신중도, 당진 영탑사 신중도, 대구 달성 용연사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신흥사 시왕도 등이 환지본처되기도 했다.

불교문화유산 복원·기록 성과, 한자리서 만나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전시회 2제
양평 문화유산보존센터서 개막
실물콘텐츠 제작 등 결과물 선봬
'傳–유산, 잇다'…영인·모사 전시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 '전(傳)–유산, 잇다'에서 선보이는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의 초 모사본.

문화유산은 영원하지 않다. 자연재해로 멸실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깊어져 원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보존과학기술이다. 문화유산이 최대한 덜 손상되도록 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원형을 기록해 놓아 멸실을 대비하는 것이다.

양평에 건립된 조계종 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혜공 스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는 전적, 불교회화 등을 전문적으로 보존처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보존센터는 올해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과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은 민간소장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적·회화류의 영인·모사본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과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공익 사업으로, 불교회화의 보존수명 연장과 원형 복원, 가치 제고 등에 목적이 있다.

올 한 해 이뤄진 일련의 보존처리 및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보존센터에서 열린다.

보존센터 지하 1층 다목적전시실에서 열리는 '전(傳)-유산, 잇다'에서는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의 결과물들이 선보인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으로 보존센터는 괘불탱의 초(草, 불화의 밑그림)를 모사한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10m에 달하는 대형불화의 초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만큼 불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찾아가 볼만하다.

12월 19일 1층 일반전시실에서 열린 '손 끝의 공덕' 전시는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사업'의 결과물들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보존처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완주 대원사 진묵대사 진영', '영광 불갑사 일명 진영' 등을 비롯한 15점의 고승 진영들이 대중에 소개됐다.

한편, '傳-유산, 잇다'는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왜곡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바로잡기 나선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사 진실을 찾다' V
내년 1월 10일 제주교육박물관서

왜곡된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 스님)은 2026년 1월 10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대 제주불교사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된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의 노력은 지난 2019년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항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시리즈로 이어져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운동'의 왜곡상을 고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운동의 왜곡상 고찰-김석윤 배후설을 반박하며'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김석윤 배후설의 진위를 밝히고 운동 참여자 숫자에 대한 왜곡도 지적한다. 특히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서술에서 나타나는 여러 오류가 한 연구자의 논저에서 비롯돼 무비판적으로 재인용되며 확대되고 있음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겸임교수)는 '근대 제주불교와 만암·묵담 스님의 역할'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 과정에서 만암 스님과 묵담 스님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육지 사찰의 제주 포교 활동이 제주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제주 관음사, 법정사 창건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이석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근대제주불교 중흥과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인 관음사와 법정사에 관련한 연구를 조망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월정사, 불교한글유산 플랫폼 구축

12월 15일 MOU 체결식 개최
상원사중창권선문 등 한글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키로



상원사중창권선문 등 불교한글문화유산이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12월 15일 월정사 화엄루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원사중창권선문, 월인석보 등 월정사 및 소속 말사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자료 조사 및 정밀 실물 촬영 △오대산 월정사 관련 불교한글문화유산 지식정보 수집 및 시맨틱 콘텐츠 집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관련 상호 협조 등을 추진한다.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가 소장한 불교한글문화유산과 관련 지식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월정사의 성보들이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불교문화학회 출범…회장 김방룡 교수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서
'태고선 사상' 주제 학술대회도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3) 국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회가 출범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방사·열린선원·용월사·향림사·혜광사·용운사·천련사 등 태고종 소속 사찰 및 스님들의 후원과 불교학계 연구자들이 합심해 출범한 태고불교문화학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를 추대했다. 학회 총무이사로는 법우 스님(용월사), 편집위원장으로 원영상 원광대 교수, 감사로는 김탁(한국학중앙연구원), 심일 스님(태고종 초심위원)이 임명됐다.

김방룡 학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여러 스님들과 학자들의 귀한 원력이 모여 출범하는 학회인 만큼 그 씨앗이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자라나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이라는 문화적 현장 속에서 향유되어온 불교의 사상과 신앙, 문화에 대한 학술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